

LG산전,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 CE마크 획득

LG산전(주)(대표 : 손기락)은 지난해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Digital EMPR; Electronic Motor Protection Relay)가 최근 독일 인증기관인 튜브(TUY)사가 실시한 표준 규격인 IEC-60947 규격 시험을 통과하여 유럽 공동체 인증 마크인 CE(Conformite European)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E 마크를 획득한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는 과전류, 결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부족 전류, 지락, 순시 단락에 대한 보호까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종합 디지털 모터 보호계전기다.

또한, 모터보호계전기의 모든 기능을 간단한 버

튼 조작으로 선택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전자식 계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용을 꺼려 하는 가장 큰 원인인 노이즈(Noise)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LG산전의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는 지난해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여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임을 입증받았다.

LG산전은 이번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의 CE마크 획득으로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산전, 산·학 연계활동

LG산전(주)(대표 : 손기락)이 산학 연계활동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G산전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지사 연수원에서 공업계 교사 78명을 초청, 공장자동화와 PLC(논리연산제어장치)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체의 자동화 신기술을 학계에 전파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내용이 기술발전의 흐름을 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산학간 지속적 협조체제를 통한 현장 연수기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산전은 '95년 이후 매년 600여명의 교사에게 산업체의 신기술을 전파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지사 연수원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업계 교사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한편 LG산전은 향후에도 다양한 산학 연계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학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전기, '(주)이티아이'로 새로 탄생

UPS, 변압기 생산 전문업체인 (주)이화전기(대표: 배문영)가 최근 사명을 (주)이티아이로 변경하고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화전기는 지난 8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인터넷 사업을 회사의 주력사업으로 추가 설정했으며 회사의 이름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측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에서도 회사의 명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화전기는 지난해 말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아하네트와 합병계약을 체결,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으며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인 www.cast4u.co.kr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사이버 캐스팅, 연예인 등용,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상의 동영상 표현기술인 플래시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화전기와 아하네트 양사는 합병신고절차를 거쳐 29일 완전한 업무통합에 들어갈 예정이다.

LG전선, 에너지절감 공정개선에 초점

LG전선(대표: 권문구) 구미 1공장은 초고압 케이블을 비롯해, 광통신, 해저, 인공위성 케이블 등 전선관련 소재에서부터 첨단 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정보 및 에너지전송을 전담하고 있는 첨단 네트워크 전문회사.

'98년 VA시범업체로 출발한 LG전선 구미공장은 부서별 에너지평가제를 도입, 에너지절감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부서별로 에너지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비율을 10%로 높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LG전선은 이 제도를 VA와 연계해 오는 2003년까지 에너지사용량을 '99년 대비 15% 내리고 CO₂ 배출량도 20%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과위원회별 절약개선외의 일환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해온 가치창출위원회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천년 벽두 계획으로 에너지절감의 가시적

인 성과를 위해 공정개선부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에나멜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내부적으로는 인동, 안양 등 나머지 2개공장에서 대해서도 VA참여를 준비중에 있고 바깥으로는 중국, 사우디지역을 비롯해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팀 담당자는 VA제도와 관련 "VA제도참여를 통해 경영자를 포함한 전직원들의 에너지 절

약에 대한 마인드가 눈에 띄 정도로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노사간 단합심이 강해져서 생산성을 올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지난 한해동안 품질경쟁력 우수 1백대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VM, TPM 전기에너지, World Best Award, 노사화합등 총 5개 부문에서 대상을 휩쓰는 영예를 안았다.

케이디파워, 전기안전관리 'iKEN' 시연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는 1월 24일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신규사업인 'iKEN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신규사업인 'iKEN'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업무상 해외 또는 국내출장시에도 수시로 전력설비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점검·비상제어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전력관련데이터를 휴대폰을 통해 자동 송신해 줌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전력안전관리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환경감시를 비롯 각종 FA·HA 및 각 가정의 전기관리까지도 가능하며 종합 방재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기안전진단으로 ▲실시간 감시제어로 안전운전가능 ▲전기요금 20% 절감 ▲전력사고 사전예방 ▲국가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등 종합시스템화 실현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iKEN'시스템을 3월부터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상용화해, 기존의 각 가정 방문형태의 전기안전 대행업체의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주 사장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용 전력부하관리제어시스템 구축기술을 바탕으로 전력분야의 전자상거래와 에너지절감시스템, 산업자동화통합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서 세계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장기프로젝트를 밝혔다.

(문의 : <http://www.kdpower.co.kr>)

한국중공업, 이란 발전설비 업체에 최신 경영관리기법 전수

한국중공업(주)(대표 : 윤영석)이 최근 이란 최대의 발전설비 업체인 맵나(MAPNA)사의 최고

경영진을 상대로 국내 연수를 실시, 최신 경영관리 기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한중에 따르면 래판 회장과 마조비사장 등 매프나사 최고경영진 7명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한중 창원공장에서 발전 프로젝트 수행과 품질 및 인력관리, 한중의 경영개선활동인 'MAP'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또 한중 창원공장내 원자력공장과 터빈

공장에서 발전설비 제작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500급 국내 표준 화력발전소인 하동건설 현장도 견학했다고 한중은 말했다.

한중은 이번 방문기간중 매프나사 경영진과 650MW 화력발전소 사업 등 이란내 발전사업을 공동추진하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 경상이익 대폭 신장

대한전선(주)(대표 : 유채준)은 지난해 350억원(추정)에 이르는 경상이익을 내 1998년 대비 70%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 회사가 이같이 경상이익 신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캐나다 알칸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알루미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대폭적인 재무구조개선을 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선측은 그러나 매출실적은 같은기간 동안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등 외

부적인 요인으로 1조3,500억원 규모에 머물러 오히려 전년도인 '98년 1조4,037억원 규모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선은 올해 사업전망과 관련, 초고속 정보통신망·고속전철 등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증대를 비롯한 초고압·통신프로젝트 등 해외영업 확대, 스텐레스사업 호조, 적자부문 알루미늄사업 정리 등에 힘입어 매출과 함께 손익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창규 前 LG전선 전무 회성전선 대표이사 발탁

양창규(梁昌圭) 전 LG전선 전무이사(56)가 회성그룹의 주력기업인 회성전선 대표이사로 발탁, 지난달 4일 정식 취임했다.

신임 양창규 사장은 지난 '69년 한양대를 졸업한 후 금성전선에 입사 ▲'89년 금성전선 이사 ▲'96년 LG전선 상무이사 ▲'97년부터 LG전선

전무이사직을 최근까지 수행해 왔다.

양사장은 특히 전선업계 입사부터 전력계통화 사업의 일환인 전력케이블 부문에 줄곧 몸담아온 실력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성격도 호방하여 한전을 비롯한 전선업계 등에 지인(知人)이 많다.

한국중공업, 완전 민영화 된다.

오는 2001년 상반기 중 한국중공업 민영화작업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한중은 오는 4월말까지 선진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상을 완료, 지분 25%를 외국기업에 넘기고 기업공개 형식으로 지분 24%를 직상장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에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지분 26%이상을 매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지분을 처분, 한중의 소유·지배구조를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중 민영화방안을 확정,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기술 제공자인 GE, ABB와 각각 10~15%씩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술제휴선인 외국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중과의 전략적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경영권 인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1차로 올 4월까지 기업공개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지분 4.8%를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지분 19.2%를 증시에 직상장기로 했다.

또 현재 한중의 경영권 인수에 관심이 있는 해외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과 사업경영능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내 지배주를 선정기로 했다.

한편 현재 산업은행은 한중 지분 43.8%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전과 외환은행이 각각 40.5%와 15.7%를 가지고 있다.

